

## 文, 10일 김영남·김여정과 오찬

오늘 北 고위급대표단 인천공항 통해 방남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김여정(사진)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10일 오찬을 한다.

오찬 장소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0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김여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날 낮 1시30분에 인천공항에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꾸려져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당시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할 때도 '김정은 전용기'를 통해 서해 직항로로 왕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 1면 '-40℃~105℃ 견디는 자동차용...'서 계속

## 국제표준회 규격 최고수준 성능

여기에 반도체 국제표준화기구(JEDEC)의 UFS 2.1 규격에서 최고 수준 성능인 연속 읽기속도 초당 850메가바이트(MB/s), 임의 읽기속도 4만5000IOPS(초당 입출력 처리)를 구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새로운 셀에 옮기는 데이터 리프래시 기술로 처리 속도 역시 높였다.

JEDEC은 1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해 특허 출원한 온도감지 기술과 데이터 리프래시 기술을 차세대 USF 3.0 규격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전자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업계 최대의 eUFS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자동차 메모리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한줄 News

#### 정책·사회

▲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을 압수 수색했다.

#### 산업

▲ 유진로봇은 8일 을지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카트를 시연하며 물류로봇 사업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출시 2주년을 맞은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OTT(Over The Top) 서비스 '옥수수'가 사용자환경(UI·UX) 개편으로 얼굴을 바꾸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 금융·부동산

▲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지주에 빼겼던 리딩금융 그룹 자리도 9년 만에 되찾았다.

▲ 동계올림픽 등으로 속도 조절 중이던 건설사들이 설 이후 ~ 3월까지 대거 분양에 돌입한다.

#### 유통

▲ 홈쇼핑업체가 지난해 온라인쇼핑(모바일+PC), T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내놨다.

▲ 2명중 1명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부모님께 약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즉구(즉시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80조 투자해 신시장 창출 머리 맞댄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간담회 2조 규모 상생발전추출범 대·중소기업 좋은일자리 창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추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업계는 2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8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상생발전 공동선언 ▲대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지원 ▲기술유출

일시: 2018. 2. 8(목) 장소: 더 플라자 오키드홀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선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백운규 장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이도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연합뉴스

방지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획기적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성능 1000배, 전력소모 1/1000배를 목표로 기존의 실리콘보다 효율성이 높은 탄화규소(SiC), 텔루라이드(GS

T), 질화갈륨(GaN) 등 신소재에 대한 상용화 기술연구를 추진하며 공정 측면에서 나노 단위를 초월하는 극미세 공정기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20% 이상 신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사용량 60% 절감 및 공정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는 프린팅 방식의 생산체계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창출과 관련하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가전, 엔터

지, 바이오, 기계 등 5대 수요분야와 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표준, 해외진출 등 핵심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월드챔프 소재·장비 기업을 육성하고 후방산업 경쟁력을 근간으로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하는 '상생협력 2.0'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 자금을 1조 원 이상을 대출 지원하고 정부와 대기업 1:1 매칭을 통해 석박사 인력 2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성장·인수 합병(M&A) 지원을 위한 '반도체 성장펀드'를 2019년까지 투자완료하고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MOU)가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연봉 10억대 오너일가 CEO, 보수 중 84%는 성과와 무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수 책정기준 공시 필요

1년에 5억원 이상을 받는 지배주주(오너) 일가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봉의 대부분을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비금융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위원 가운데 2016년에 퇴직금을 제외한 총보수가 5억원 이상인 CEO는 263명으로 전년(221명)보다 19% 늘었다.

이들 가운데 지배주주 일가는 126명이고 전문경영인은 13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2억5000만원이었는데 지배주주 일가는 평균 13억9000만원을, 전문경영인은 평균 11억3000 원을 각각 받았다.

결국, 오너 일가 CEO의 연봉이 전문경영인보다 약 2억6000만원 더 많았다.

조사 대상 CEO가 받은 보수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변동상여' 비중은 25.8%였다.

나머지 4분의 3은 성과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급여와 고정상여, 기타 소득 등이다.

특히 지배주주 일가는 보수에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4%로 전문경영인(26.7%)보다 훨씬 더 낮았다.

성과와 무관한 보수 비중이 전문경영인은 73.3% 정도인 데 비해 지배주주일가는 83.6%라는 얘기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방문욱 연구원은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CEO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보수의 비중은 11% 정도인 데 비해 국내 상장사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방 연구원은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CEO는 변동상여 비중이 더 낮고 이들 중 변동상여가 아예 없는 경우

도 37%에 달한다"며 "이는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어려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경영자의 보수 기준이 공시되고 주주들이 이에 대한 의견도 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이후에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CEO 보수가 공시되는 등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방 연구원은 "기업들이 CEO 보수와 책정 기준 등 정보를 주총 전에 이사보수 한도 안건과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

## 정부, 수산자원 회복에 590억 투입... 바다숲 3100ha 조성

### 해수부·수자원공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바다목장 5개소 등 착공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목장 5개소와 바다숲 3100ha를 조성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과 관련하여 ▲바다숲 조성·관리 ▲수산자원 증대(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 운영



바다목장 조성해역 수중 모습.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부터 추진된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현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바닷속에 해조류·해초류를 직접 심거나, 바다숲을 보호·보전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동·서·남해 및 제주 해

역에 총 20개소, 3108ha 규모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시마·감태·잘피 등을 적극 활용해 바다숲의 자생력과 생물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2006년부터 추진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바다에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

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바다목장 5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각 바다목장별로 인공어초를 활용해 어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주요 수산자원 양류 및 모니터링 등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안산 풍도에 조성되는 바다목장에는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완현해수부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회복은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실현하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